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제1주 】

인도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25. 면류관 벗어서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빛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대받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그리고 머나먼 이방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낮고 외진 곳으로 우리의 눈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의 아픔과 신음을 제대로 보고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한 주 내내 휘몰아쳤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밖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 한데에서 쪼그리고 잠을 청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 힘없고 약한 존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군림하는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학대받은 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새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인도자
교 독 문 ..... 121. 주현절(1)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130. 찬란한 주의 영광은 .....	다 함께
성경봉독 ..... 사 29:13~14 .....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연 주 ..... 하나님의 은혜 ..... 이해명 교우  
말 씬 ..... 앵무새 신앙 넘어서기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 함께  
찬 양 ..... 459. 누가 주를 따라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칠어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려 애쓰지 말  
고, 일상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참된 일꾼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척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잇닿기 위해 내 욕망을 말  
끔히 비우겠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서 있겠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보듬고, 반목하는 이들을 화평하  
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  
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축 복 .....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